

중국의 실리콘 벨리: 中關村

김화섭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관촌! 중국의 실리콘 벨리로 일컬어지는 곳으로서 중국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단계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곳은 최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하였다고 해서 주목을 끈 적이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피어나고 있는 '지식 경제'의 대명사인 중관촌을 북한에 접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도대체 중관촌이란 어떤 곳일까? 어떤 곳 이길래 김정일 위원장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중국은 중관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해답을 내기 전에 중국의 정보통신 정책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사실상 시발점인 863계획

중국은 1964년 10월 원자폭탄 실험과 1970년 4월 인공위성 '東方紅1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일찍부터 핵무기 및 우주 개발 분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고도의 연구 개

발 경험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산업화로의 연결이 어려웠으며 이러한 추세는 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1983년 당시 총리였던 趙紫陽이 국무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이 과학 기술의 성과를 잘 활용하면 선진국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선진국에 뒤지게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신기술 혁명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당시인 70년대 중반 및 80년대 초반은, 중국이 대형 기술 도입 및 소화에 치중할 때 선진 공업국은 첨단 기술 산업 위주로 산업 구조를 조정해 나간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영원히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초조감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즉 당시에는 사회·경제 발전에 미치는 첨단 기술 개발의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대규모로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

863계획을 비롯한 각종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의 틀 속에서 발전해 오던 정보통신 산업은 1993년 「국가정보인프라(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건설계획」이 시작되면서 독립된 개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제8차 5개년계획(1991~95년)부터 시작된 金宇工程(Golden Project)은 중국의 정보통신 산업 기반 형성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80년대 초반 이후 '과학 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라는 취지와 '경제 건설과 과학 기술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상을 기초로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1986년 3월에 시작된 '863계획'이다.

1986년 3월 王大衍, 王淦昌, 楊嘉墀, 陳芳允 등 4 명의 과학자가 당 중앙위에 제출한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 관한 건의」를 국가 계획위원회와 중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86~2000년 과학기술발전계획으로 편입함으로써 863계획은 사실상 태동하게 되었다. 동계획에 의하면 중국은 2000년까지의 15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과학·연구 기술진을 투입하여 첨단 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장려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첨단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야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 내에 정보통신 산

업이 생물 기술(특히 동식물의 유전 형질 연구, 신형 백신·약품,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치료 기술 개발에 관한 biotechnology), 우주 과학

(특히 차세대 우주선, 궤도 진입 기술), 레이저 기술,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에너지 절약(특히 원자력 분야), 신소재 등의 분야와 함께 자리를 잡고 있다. 즉 정보통신 산업은 중국이 중점을 두는 산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약 15년간 실시된 863계획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고해상도 디지털 화상 출력 기술을 개발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동기술의 개발은 중국 우주 원격 탐사와 지구 측적 제도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 응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된 정보통신 개발 정책 마련

863계획을 비롯한 각종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의 틀 속에서 발전해 오던 정보통신 산업은 1993년 「국가정보인프라(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건설계획」이 시작되면서 독립된 개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제8차 5개년계획(1991~95년)부터

시작된 金字工程(Golden Project)은 정보통신 산업 기반 형성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金橋, 金關 및 金卡 등 소위 '3金工程'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金橋工程(golden bridge project)은 금자공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으로 지방정부와 국유 기업을 연결하는 기간공중통신망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식(정보)산업부의 CHINAPAC(China Packet-switched Data Network), CHINADDN(China Digital Data Network),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인공위성과 광케이블 및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정부 부처, 30개의 省·市·자치구의 정보센터, 전국 500여 개의 대도시, 1만 2,000여 개의 국영 대중형 공업 기업 등과 연결된 국가공중경제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金關工程(golden customs projects)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세관, 무역 회사 등 수출입 관련 부문을 연결하여 문서없는 무역 거래와 통관 자동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金卡工程(golden card project)은 전국적인 금융카드의 발행체계를 구축하는 전자화폐 시스템의 도입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

중국 정보통신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급속한 팽창이다. 1999년 한 해 동안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는 1,800만 명에 달해 1998년의 2,600만 명을 포함하여 1999년 말 현재 이동통신 이용자는 4,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다. 금자공정은 제9차 5개년계획(1996~2000년) 기간 중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13 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정보 산업 및 전자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전부, 전자공업부, 라디오·영화부 등 3 개 부처를 통합하여 1998년 3월 신식(정보)산업부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

이동통신

중국 정보통신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급속한 팽창이다. 1999년 한 해 동안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는 1,800만 명에 달해 1998년의 2,600만 명을 포함하여 1999년 말 현재 이동통신 이용자는 4,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1996년 본격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망이 구축된 이후 1997년 7월에는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이미 세계 3위의 시장 규모가 되었으며, 1998년 8월에

중국 이동통신 산업은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인 발전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 WAP(무선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산업과의 결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역시 WTO 가입을 계기로 관세 면제와 외국 자본 지분 상한 확대 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 기업의 참여가 금지되어온 중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는 사용자가 2,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중국 이동통신 산업은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인 발전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 WAP(무선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산업과의 결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중국전신이 2000년 5월 에릭슨과 업무 제휴를 통해 WA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2003년 이전에 반도체, 컴퓨터, 전선 설비 및 기타 하이테크 제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4년 내에 기초 전신 사업에서 외국 자본의 지분 상한을 기존의 25%에서 49%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무선 호출과 데이터 전송 등 사업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지분은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며, 이동통신 사업은 1년 내에 망 서비스를 개방하고, 5년 이

〈표〉 1999년 주요 컴퓨터 하드웨어 상품 시장 규모

주요 하드웨어 상품		1998년				1999년			
		판매량	성장률 (%)	판매액 (억 위안)	성장률 (%)	판매량	성장률 (%)	판매액 (억 위안)	성장률 (%)
메인	대중형 소형(서버기)	175 대	18.2	14.5	9.9	224 대	28.0	16.8	15.9
	워크스테이션	1,966 대	-22.8	11.5	-21.2	3,645 대	85.4	22.7	97.4
	PC 서버기	6,225 대	-19.9	14.1	56.7	11,759 대	88.9	21.0	48.9
	데스크탑 PC	10.8만 대	8.0	33.5	-	12.9만 대	19.4	39.3	17.3
	노트북컴퓨터	373.5만 대	16.0	389.5	-	448.7만 대	20.1	407.5	4.6
		23.7만 대	31.7	52.2	10.6	29.8만 대	25.7	58.7	12.5
주변 기기	모니터	415.0만 대	14.6	55.7	1.5	492.0만 대	18.6	59.0	5.9
	프린터	183.1만 대	24.8	60.5	12.0	234.2	27.9	69.8	15.4
	스캐너	19.8만 대	90.4	5.2	52.9	40.6	105.1	8.7	67.3
네트 워크 상품	교환기	13.4만 대	34.0			16.2	20.9	35.0	
	허브	38.3만 대	66.5			33.0	-13.8	6.1	
	랜카드	324.5만 대	170.4			505.0	55.6	4.2	
	Modem	96.0만 대	60.0			145.0	51.0	5.5	
	라우터	12.4만 대	12.7			135.0	8.9	27.0	
소계				58.0	38.1			77.8	34.1

자료: CCID-MIC(Marketing Information Center with the China Computer).

내에 완전한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있다.

컴퓨터

90년대 들어 정보화가 진전되고 이에 따라 컴퓨터 산업도 PC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999년 중국의 컴퓨터 판매는 491만 대(이 가운데 PC가 449만 대)에 달하였으며, 관련 부품까지 포함한 컴퓨터 하드웨어의 판매 총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305억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은 아시아의 주된 컴퓨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1999년 상반기 중국 PC 시장은 일본이 시장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의 34.4%를 점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거의 100만 대 가까이 수요가 늘어나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 산업에서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이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대기업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 컴퓨터 업계 가운데 18 개가 전자 산업 부문 100대 기업에 속했으며, 상위 10위 기업 가운데 5개 기업이 컴퓨터 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다. 중국 업체인 聯想은 1999년 상반기 209만 대를 판매하여 아시아 시장에서의

90년대 들어 정보화가 진전되고 이에 따라 컴퓨터 산업도 PC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999년 중국의 컴퓨터 판매는 491만 대(이 가운데 PC가 449만 대)에 달하였으며, 관련 부품까지 포함한 컴퓨터 하드웨어의 판매 총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305억 위안을 기록했다. 2000년 1월 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890만 명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 350만 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7년 6월 말 이후 매 6개월마다 평균 10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장 점유율이 IBM, COMPAQ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9년 중국의 컴퓨터 모니터 생산량은 3,000 만대에 달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

1984년 중관촌 지역의 교육 및 과기연구 시범망(CNFC)과 미국의 NSFNET이 연결된 이후 중국의 인터넷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0년 1월 말 현재 인터넷 사용 인구는 890만 명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 350만 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7년 6월 말의 인터넷 사용자 118만 명, 접속 컴퓨터 54만 대, 1998년 6월 말의 400만 명, 146만 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 6개월마다 평균 10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 네트워크 용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해외 인터넷에 접속할

중관촌이 세계 IT 산업계의 신데렐라로 부상하면서 전세계의 시선을 끌게 된 것은 중관촌을 중국의 실리콘 벨리로 육성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중관촌 과학기술구 개발 정책이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수 있는 총 용량은 351 Mbps인데, 이는 1997년 10월의 약 14 배에 달한다.

중국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상징, 中關村

중국을 이동통신 가입자 및 인터넷 인구의 급증 등 급속한 시장 확대를 배경으로 세계 IT 산업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이동통신 단말기, 컴퓨터 등에서 세계적인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성장 속도가 지속된다면 향후 수년 내에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만디'라는 말이 무색하게 인터넷 벤처붐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북경시에서만 9,000 개가 넘는 벤처 기업이 창업하였으며, 新浪網(www.sina.com), 소후(www.SOHO.com) 등이 세계 인터넷 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IT 산업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관촌이다. 중관촌은 남쪽의 白石橋에서 북쪽의 과학촌에 이르

는 총 연장 8 km의 전자상가단지(電子一條街)와 '중관촌 과학촌', 土地情報產業團地로 구성된다. 특히 과학촌은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등 연구 인력 1만 5,000 명을 보유한 최고 두뇌 집단의 집합체로 첨단 과학 기술 산업의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다. 상지정보단지는 미국의 IBM과 GE, 일본의 비쓰비씨 등 130여 개에 이르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聯想 등 중국의 중견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전자정보 산업단지이다.

지난해 중관촌은 그 명성에 어울리게 상당한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전년보다 93%가 늘어난 1,227 개사가 이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며, 총 입주 기업 6,690 개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864억 위안에 달하였다. 이는 북경 전체 공업 총생산의 67%에 달하는 것이며 이 지역 기업들의 평균 R&D 투자는 매출액의 8%에 달한다.

"중국의 실리콘 벨리로 육성시키겠다"

중관촌이 세계 IT 산업계의 신데렐라로 부상하면서 전세계의 시선을 끌게 된 것은 중관촌을 중국의 실리콘 벨리로 육성시키겠

다는 중국 정부의 중관촌 과학기술구 개발 정책이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원과 기술의 집적을 통해 정보통신 산

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관촌은 이러한 정책이 구체화된 사례의 하나이다. 사실 중관촌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중국 정보통신 산업의 주요한 한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었다. 1998년 중국 정부는 첨단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관촌을 제1호 첨단기술개발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중국 최대의 컴퓨터 회사인 聯想 등이 중관촌에 자리를 잡고 성장을 거듭하는 등 중관촌은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러한 발전을 배경으로 지난해 1월 북경시가 중관촌을 중국의 실리콘 벨리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6월 중앙정부가 이 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인함으로써 중관촌의 개발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관촌을 중국 과학 기술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향후 경제 발전을 이끄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장쩌민 국가주석이 “향후 10년 이내에 대만의 新竹단지를 따라

중관촌은 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8 km에 달하는 중관촌 전자상가단지에는 전자 제품 상가와 생산 공장이 밀집해 있는 중국 최대의 전자 제품 집산지이다. 중관촌은 중국에서 컴퓨터 부문의 연구 수준이 가장 높다. 시장 규모가 크고 제조업자가 밀집해 있으며, 조립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해외의 기술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신기술 시장이기도 하다.

잡고, 20년 내에 미국의 실리콘 벨리를 따라 잡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야심적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총 2,000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술, 인력 및 시장을 고루 갖추고 있어

중관촌은 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8 km에 달하는 중관촌 전자상가단지에는 전자 제품 상가와 생산 공장이 밀집해 있는 중국 최대의 전자 제품 집산지이다. 중관촌은 중국에서 컴퓨터 부문의 연구 수준이 가장 높다. 시장 규모가 크고 제조업자가 밀집해 있으며, 조립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해외의 선진 기술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신기술 시장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IT 산업의 집적지로서 불가결한 기술 및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 중관촌 주변에는 北京大, 靑華大 등 73개 대학이 산재하고 있으며, 中國科學院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232개의 연구 기관 및 30만이 넘

2000년 중으로 중관촌의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는 중관촌을 중심으로 북경시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디지털 중관촌 계획'의 일환이다.

는 과학 기술 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연구의 역량, 과학 측정 기계 등 설비, 도서 정보와 뉴스, 연구의 성과가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중국의 IT 기업들이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현재 중국 IT 업계의 대형 기업인 연상(聯想), 정방(正方), 사통(四通), 장성(長城), 지광 등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으며, 통신 부문의 4대 기업인 거룡, 중홍, 대당, 화위, 가전 부문의 하이얼, 해신 등이 모두 이곳에 상품개발센터를 건립하였다.

이러한 입지 여건은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IBM,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롤라, HP, 도시바 등의 수십 개의 국제적인 기업이 계속해서 중관촌이나 그 주변에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다.

적극적인 육성 정책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자금 투입 계획을 포함하는 장기 비전의 발표와 함께 인력, 자본, 관련 기구, 시설, 기반 인프라, 해외 관련 등

6 개 방면에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1997년의 白石路 정비 사업을 통하여 도로, 통신 시설, 사무 공간, 금융 기관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상지 정보산업단지에는 10만 평방미터의 표준 공장, 4,600 평방미터의 유학인력창업센터 등을 설치, 입주 기업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2000년 중으로 중관촌의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는 중관촌을 중심으로 북경시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디지털 중관촌 계획'의 일환이다. '디지털 중관촌' 계획은 ① 중관촌에 위치하고 있는 과학기술원을 디지털화, 중관촌의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일체화, ② 온라인상에서 중관촌의 전자상거래센터를 구축, 과학 기술 업체의 B2B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③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 정보 자원을 개발하고 과학 기술 기업의 정보 교류와 활용을 원활화, ④ '디지털 중관촌'을 구축, 과학기술단지의 기획, 건설, 감독, 정보 관리 등에 관련한 시스템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다 가시적인 육성 정책의 하나로서 중관촌 내에 국가적 규모의 대형 소프트웨어

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기업 인증 체계를 구축, 인증을 통과한 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벤처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4월부터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포함하는 중관촌 기술교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큐베이팅 기구에 대한 표준과 관련 정책을 제정하였다.

창업자금과 관련한 정책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북경 상업은행이 2년 내에 중관촌에 전국 대출액의 50%인 100억 위안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히는 등 중국의 금융 기관들도 중관촌의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자금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관촌 서부 지구에 10억 위안의 기업 채권을 발행하여 기업들의 중국과 홍콩, 그리고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베이징시 유학생 귀국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 유학생의 귀국 후 창업 절차 간소화, 호구 등 생활 방면에서의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유치를 꾀하고 있다.

중관촌 입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입주하는 신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5%로 낮추고(기업의

결국 중관촌은 중국과학원을 비롯한 북경대, 청화대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 금융 지원과 해외 벤처 캐피털의 투자 등 벤처 산업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이 총생산액의 40% 이상이면 10%), 창업 3년 동안은 소득세의 정수를 면제할 계획이다. 중관촌에 입주한 외자 기업이 신기술 표준에 부합되면 토지 임대료의 25%를 감면하며, 국내 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리고 지역 내의 기업이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입 원자재와 부속품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부 개입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중관촌은 중국과학원을 비롯한 북경대, 청화대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 금융 지원과 해외 벤처 캐피털의 투자 등 벤처 산업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금강산 벨리, 남북간 협력 불가결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중관촌을 방문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김 위원장이 중관촌을 방문한 이유는 간단하다. IT 산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다. IT 산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 북한 내에서

북한이 IT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면 남한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내 남한과의 인적 교류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금강산 지역이 적격이다.

의 IT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구상하려고 했을 것이다. 북한 내에서도 IT 산업 육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어딘가 단지를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를 조성해야만 집적 효과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강산 벨리에 대해 언급해보기로 하자. 만약 금강산 벨리가 조성된다면 이는 중국의 중관촌 벨리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우선 중관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인 북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인프라가 중국 내에서 가장 양호한 곳에 입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비해 금강산 벨리는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관촌 주변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산재해 있다. 북경대, 청화대 및 인민대 등 중국에서 내노라하는 대학들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소가 산재해 있다. 즉 고급 인력 수급에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 주변에서 IT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손쉽게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시장이 크다. 시장이 크다는 것은 '기술 우물 정책'이 통한다는 것이다. 기술 우물 정책이란

외국의 기술이 중국에 들어오면 우물에 빠져 버린다는 의미이다. 즉 외국 기술들은 중국 시장을 보고 들어오지만 중국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중국화 된다는 것이다. 중관촌 내에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협소한 북한에서는 기술 우물 정책이 통할 리가 만무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강산 벨리는 자금, 인프라, 인재, 기술 도입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벨리가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남북간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이 IT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면 남한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내 남한과의 인적 교류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금강산 지역이 적격이다. 왜냐하면 왕성한 인적 교류는 왕성한 기술 및 자금 이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강산 지역의 인적 교류를 둘러싼 북한 당국이 정책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